

< 관심리포트 정리 >

SK이노베이션

에스케이온, 스위치온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예상

SK이노베이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4,528억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적자를 지속하며, 시장 기대치(2,661억원)을 하회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 발생, 운임 상승 및 전 분기 대비 비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기인한다.

1) 석유사업 영업이익은 -5,26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전환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품/원재료 관련 재고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Dangote, Yulong 등 신규 경쟁 정제설비 가동으로 복합정제마진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 화학사업 영업이익은 -657억원으로 적자전환될 전망이다. 전 분기 No.2 PX 플랜트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측면의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역내 PET 수요 둔화 및 가솔린 블렌딩 시장 부진으로 PX 스프레드가 전 분기 대비 축소되었고, 폴리올레핀도 공급 과잉 지속으로 부진한 수익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3) 윤활유사업 영업이익은 1,524억원으로 전 분기와 유사할 전망이다. 비수기에 따른 수요 둔화가 발생하였으나, 제한된 설비 증설로 견고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배터리사업 흑자전환 전망

올해 3분기 배터리사업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전환할 전망이다. 이반차/엔청 신규 라인의 램프업 효과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사 수율이 개선되었고, AMPC 또한 전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일회성 이익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SK온은 올해 4분기 희망퇴직 등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드에 공급되는 배터리를 양산하던 생산 라인 일부를 현대차용으로 전환하였고, 동 라인이 올해 10월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분기 이후 AMPC 확대, 조지아 플랜트 가동률 개선 등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은 BlueOvalSK(켄터키/테네시, 127GWh), 현대차 JV(조지아, 35GWh)의 순차적 가동으로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78,057	77,288	75,700	78,548	88,706
영업이익	3,917	1,904	385	2,845	3,946
세전이익	2,860	932	-1,196	1,615	2,718
지배주주순이익	1,569	256	-1,127	1,078	1,801
EPS(원)	16,339	2,624	-10,563	7,082	11,827
증가율(%)	437.2	-83.9	-502.6	-167.0	67.0
영업이익률(%)	5.0	2.5	0.5	3.6	4.4
순이익률(%)	2.4	0.7	-1.7	1.6	2.4
ROE(%)	8.5	1.2	-5.1	4.7	7.4
PER	9.3	53.5	-11.0	16.4	9.8
PBR	0.7	0.6	0.8	0.8	0.7
EV/EBITDA	6.0	10.0	16.6	8.5	7.2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역대 복합정제마진 추이(1M Lag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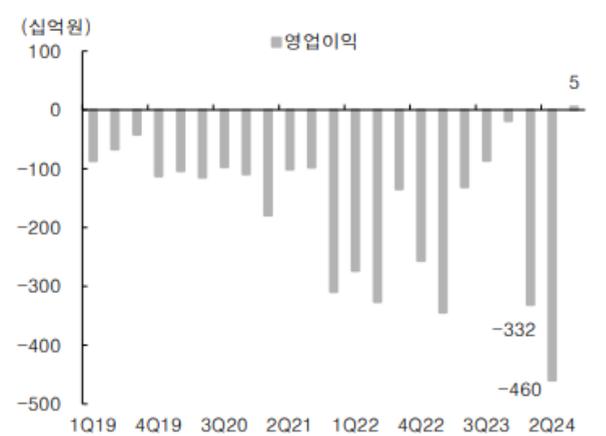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넬, IBK투자증권

그림 2. 국내 PX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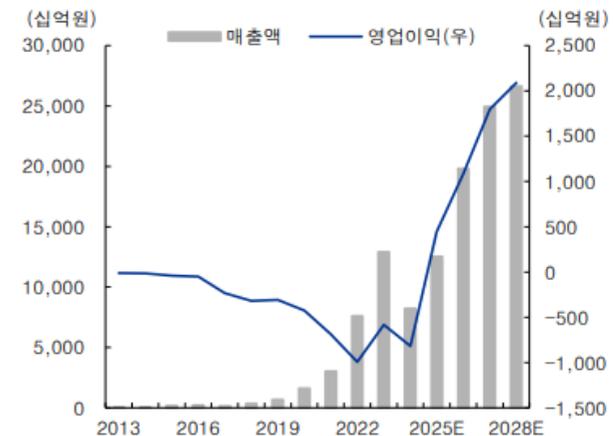
자료: 씨스캠, IBK투자증권

그림 3.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분기 영업이익 추이/전망



자료: SK이노베이션, IBK투자증권

그림 4.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장기 실적 추이/전망



자료: SK이노베이션, IBK투자증권



일진전기

변압기로 봐도, 전선으로 봐도 여전히 저평가

[출처] 유안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초고압 변압기 신공장, 12월 가동 시작

일진전기는 초고압 변압기 및 전선 부문의 CAPA 증설을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부터 신공장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약 4,000억원의 추가 생산 능력이 확보되며, 내년부터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2024년 매출액은 1조 4,605억원(YoY +17.1%), 영업이익은 780억원(YoY +28.4%)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체결한 미국向 4,300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계약물량은 2H25 이후 매출로 인식될 전망이다. 이에 2025년 매출액은 1조 6,839억원(YoY +15.3%), 영업이익 1,259억원(YoY +61.4%)을 예상한다.

현재 수주 잔고는 2.2조원에 달하며, 이 중 60%는 초고압 변압기가 차지한다. 특히 해외 변압기 수주잔고가 전년대비 약 4배 증가했으며, 이에 2025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초고압 케이블의 수주 증가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입 장벽이 높은 초고압 직류 송전(HVDC)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레퍼런스 확대가 기대된다.

3Q24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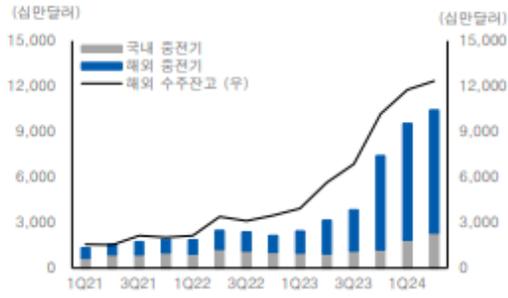
3분기에도 미국 매출 및 중전기 사업 호조로 상반기와 유사한 영업이익률(OPM 5.3%)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3Q24 매출액은 3,175억원(YoY +11.2%), 영업이익 168억원(YoY +6.2%)을 전망한다. 중전기 사업부는 초고압 변압기의 쏠티지 지속으로 2027년 수주를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 증설 이전까지는 매출액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 사업부는 고마진 초고압 케이블 수주 확대를 통해 Mix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5,000원 커버리지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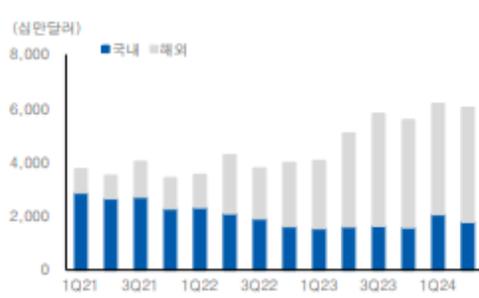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5,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25년 추정 EPS 1,842원에 Target PER 19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Target PER는 25년 글로벌 Peer의 평균 PER(21배)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글로벌 Peer는 주요 초고압 변압기 및 전선 기업들로 선별했으며, 매출 규모를 고려해 할인율을 산정했다.

계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1,647	12,467	14,605	16,839
영업이익	315	608	780	1,259
자배순이익	242	345	511	878
PER	8.6	10.1	20.5	12.2
PBR	0.6	0.9	2.6	2.2
EV/EBITDA	7.6	6.4	12.7	7.7
ROE	7.3	9.6	13.1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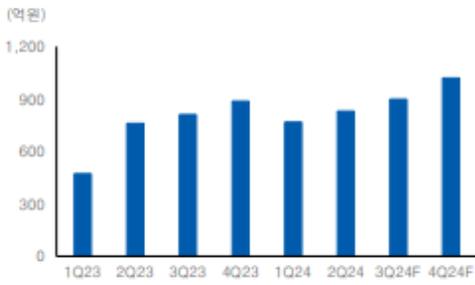
일진전기 중전기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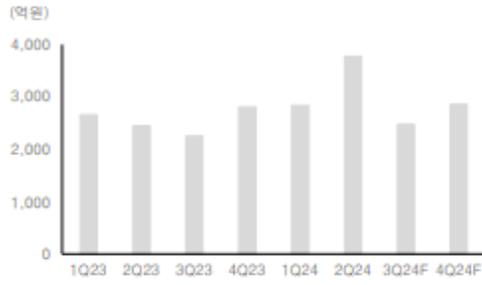
일진전기 전선 수주잔고 추이



일진전기 중전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일진전기 전선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코스트테크놀로지

K2와 천공이 이끄는 성장

[출처] NH투자증권 강경근 애널리스트

K2와 천공코트테크놀로지는 방산용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 방산용 SBC(SBC: Single Board Computer)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을 국산화하여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

K2 전차, 천공-II 등 동사 주력 분야 무기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동사는 K2 전차 초기 개발 프로젝트부터 참여하여 통합형 차량제어 컴퓨터 외 18개 품목 납품 중.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180대 규모) 임박. 폴란드 K2 납품 대수는 1H24 18대에서 2H24 38대, 2025년 96대로 증가 전망. 루마니아 수출 및 국내 K2 전차 4차 양산사업(150대 규모) 기대. 천공-II는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10개 포대, 32억달러)에 이어 지난달 이라크(8대 포대, 28억달러)와 수출 계약 체결. 동사는 천공-II에 통합 운용컴퓨터 외 4개 품목 납품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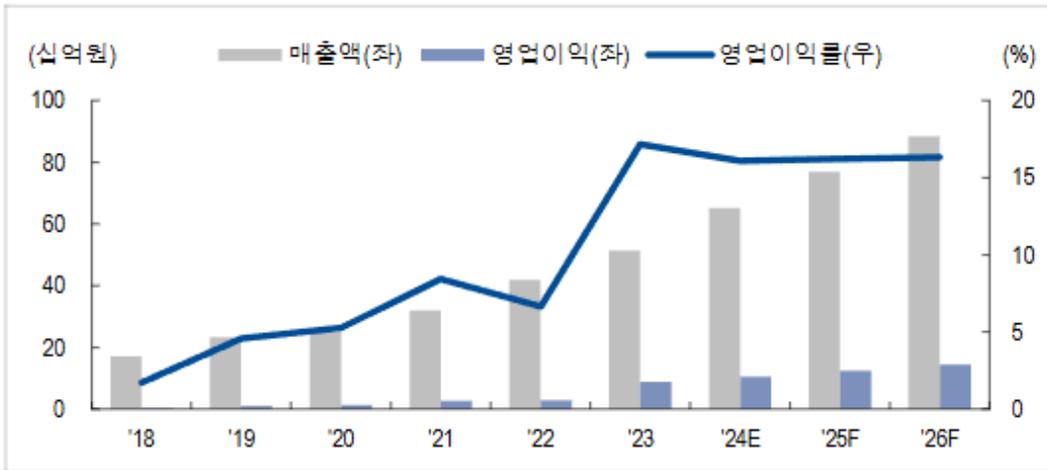
하반기 실적 성장 본격화, 현저한 저평가 국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수주잔고 1,051억원(기동화력 507억원, 유도무기 297억원, 지휘정찰 82억원, 해상 68억원, 항공 63억원, 산업 22억원, 기타 12억원). 고객사 수출 계약 공시와 맞물려 동사의 수주 물량 증가는 더욱 가팔라질 것. 특히 수출 물량은 원가 검증대상이 아니기에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 하반기 K2 납품 물량 매출이 인식되며 실적 성장 가속화될 것. 2024E PER은 11.1배로 국내 방산 Peer 기업 평균 22.9배 대비 현저한 저평가 판단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51.3	65.2	76.9	88.4
증감률	22.6	27.0	18.0	15.0
영업이익	8.8	10.5	12.5	14.4
증감률	216.0	18.9	19.0	15.7
영업이익률	17.2	16.1	16.2	16.3
(지배지분)순이익	7.0	8.6	10.3	11.9
EPS	1,567	1,683	1,991	2,310
증감률	183.0	7.4	18.3	16.0
PER	9.5	11.1	9.4	8.1
PBR	2.1	2.1	1.7	1.4
EV/EBITDA	5.6	5.4	4.6	3.3
ROE	26.6	21.1	20.4	19.4
부채비율	76.7	78.5	75.3	71.3
순차입금	-22.1	-28.8	-36.0	-45.4

단위: 십억원, %, 원, 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코초테크놀로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진성티이씨

3Q24 Preview :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3,400원 소폭 하향

진성티이씨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13,400원(기존 14,0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 하향에 대한 근거는 올해 고객사의 단가 인하 이후 수익성 개선세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동사의 2025년 예상 BPS를 12,215원(기존 12,751원)으로 하향한다. 다만, 1) 2H25부터 국내 주요 건설기계 업체들과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2) 동사의 주력 제품인 굴삭기 하부구조물 부품은 2026년 상승 사이클 초입에 돌입할 전망이다, 3)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우크라이나 재건 등으로 실적이 크게 Add-up 될 전망이다. 동사의 Valuation은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앞서 Level-up하는 특성을 지닌다. 2016년 제 45대 미국 대선 당시부터 취임 초기인 2017년까지를 살펴보면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주가는 선행(2016년 주가수익률 +63.3%)했으며, 2016년 12M Fwd P/B Band 중하단 1.1배 □ 2017년 중단 1.6배 □ 2018년 최상단 2.6배로 가파르게 리레이팅 됐다. 현재 주가는 12M Fwd P/B 하단 0.6배를 하회한 수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2H25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주가가 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3Q24 Preview: 척화지굴(尺蠖之屈), 몸을 구부리는 건 다시 펴기 위함

진성티이씨의 3Q24 실적은 매출액 906억원(-15.5%, YoY)과 영업이익 48억원(-8.2%,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 부진의 주요인은 1) 주요 고객사인 캐터필러 역시 3Q24F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매출액 \$15.5B(-8.1%, YoY), 영업이익 \$3.4B(-3.6%, YoY)으로 실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2) 업황 개선의 시그널이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굴삭기 교체는 약 10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굴삭기 호황으로 쌓여있는 재고에 대한 소진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캐터필러의 성장률이 YoY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은 매출액 3Q25F, EPS 4Q25F다. 따라서 동사 역시 전방 시장 둔화로 1H25까지 다소 부진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H25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현재 동사는 업사이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태국에 Capa 증설을 진행중이다. 전체 4공장 중 현재 1공장은 완공되었으며, 올해 연말에는 2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동사는 한국, 미국, 중국, 태국을 거점으로 연간 약 7천억원의 Capa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 태국공장이 완공되면 합산 Capa는 약 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매출액 3,935억원, 영업이익 222억원 전망

진성티이씨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3,935억원(-18.9%, YoY), 영업이익 222억원(-43.9%, YoY, OPM 5.6%)으로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241억원(OPM 6.1%) 대비 소폭 하향한다. 단가 인하 이후 수익성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기 때문이다. 회복 속도를 고려해 2025년 역시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290억원(OPM 7.2%) 대비 소폭 하향한 264억원(+19.6%, YoY, OPM 6.5%)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인프라 투자 집행과 노후 굴삭기 교체 및 발주에 따라 2026년 실적 매출액 6,051억원(+49.6%, YoY), 영업이익 508억원(+75.2%, YoY, OPM 8.4%)의 기존 추정치는 유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541.0	485.1	393.5	404.5	
영업이익	66.3	39.6	22.2	26.4	
세전이익	63.6	38.3	26.5	29.4	
순이익	45.4	28.4	19.8	22.8	
EPS	2,021	1,264	879	1,015	
증감율	165.92	(37.46)	(30.46)	15.47	
PER	6.51	8.39	9.83	8.51	
PBR	1.31	0.96	0.73	0.68	
EV/EBITDA	4.40	4.31	4.45	3.95	
ROE	24.04	12.86	8.17	8.74	
BPS	10,022	11,023	11,896	12,215	
DPS	300	200	200	200	



이마트

실적 모멘텀 3분기부터 시작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3분기 체질 개선에 따른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

2024년 3분기 이마트 실적은 시장 및 당사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 9,939억 원(전년동기대비 +3.7%), 영업이익 1,378억 원(전년동기대비 +77.0%)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 개선을 예상하는 이유는 1) 할인점 점포 효율화 및 체질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와, 2) 지난해 신세계건설 총당금 기저와, 3) SK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효과와 점포 수익성 개선, 4) 슛닷컴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부 효율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사의 2분기 기준점 성장률은 -3.0%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영업이익은(1회성 희망퇴직금 고려 시) 전년동기대비 +28억 원 개선되었다. ▶ 3분기 기준점 성장률은 -2% 중반으로 추정되고, ▶ 3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절대 마진이 높은 구간이라는 점과, ▶ 상반기 진행된 고정비 절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할인점 이익 개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적 개선 추세는 이어질 전망

3분기부터 기대되는 실적 개선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단기적으로 4분기 기준점 성장률은 명절 시점 차이에 따라 3분기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신세계건설 기저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운영전략 변경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룹내 PB브랜드 채널망 통합에 따른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사에서는 동사의 사업부 재편 및 효율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제주소주 매각, 스무디킹 철수, 기존 오프라인 재편, 신세계건설 상장폐지 등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효율화 작업 효과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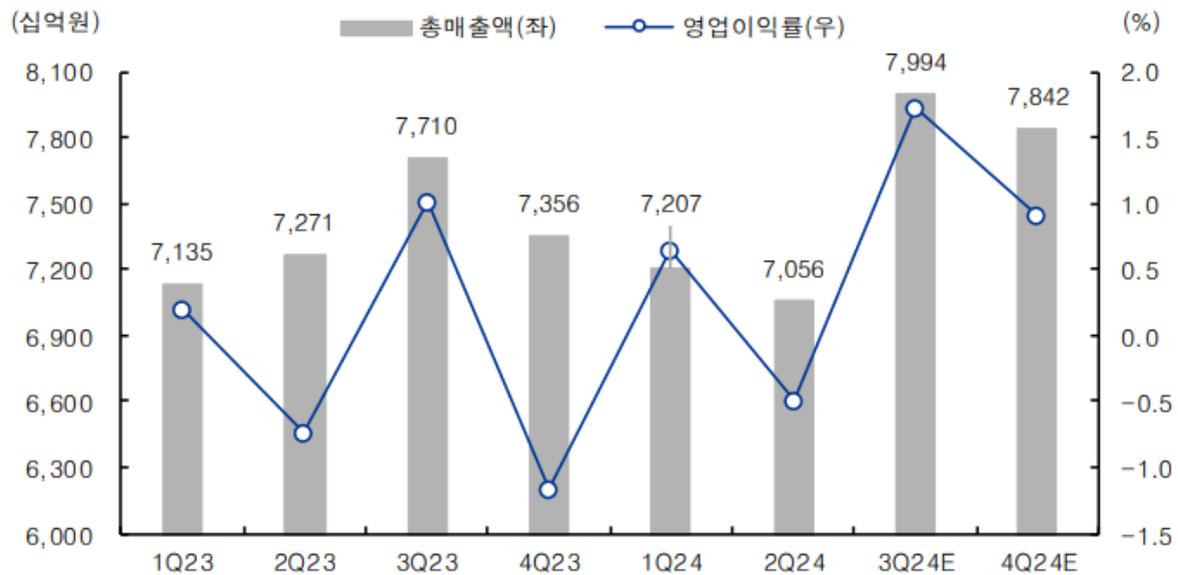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3만원으로 상향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8.3만원으로 상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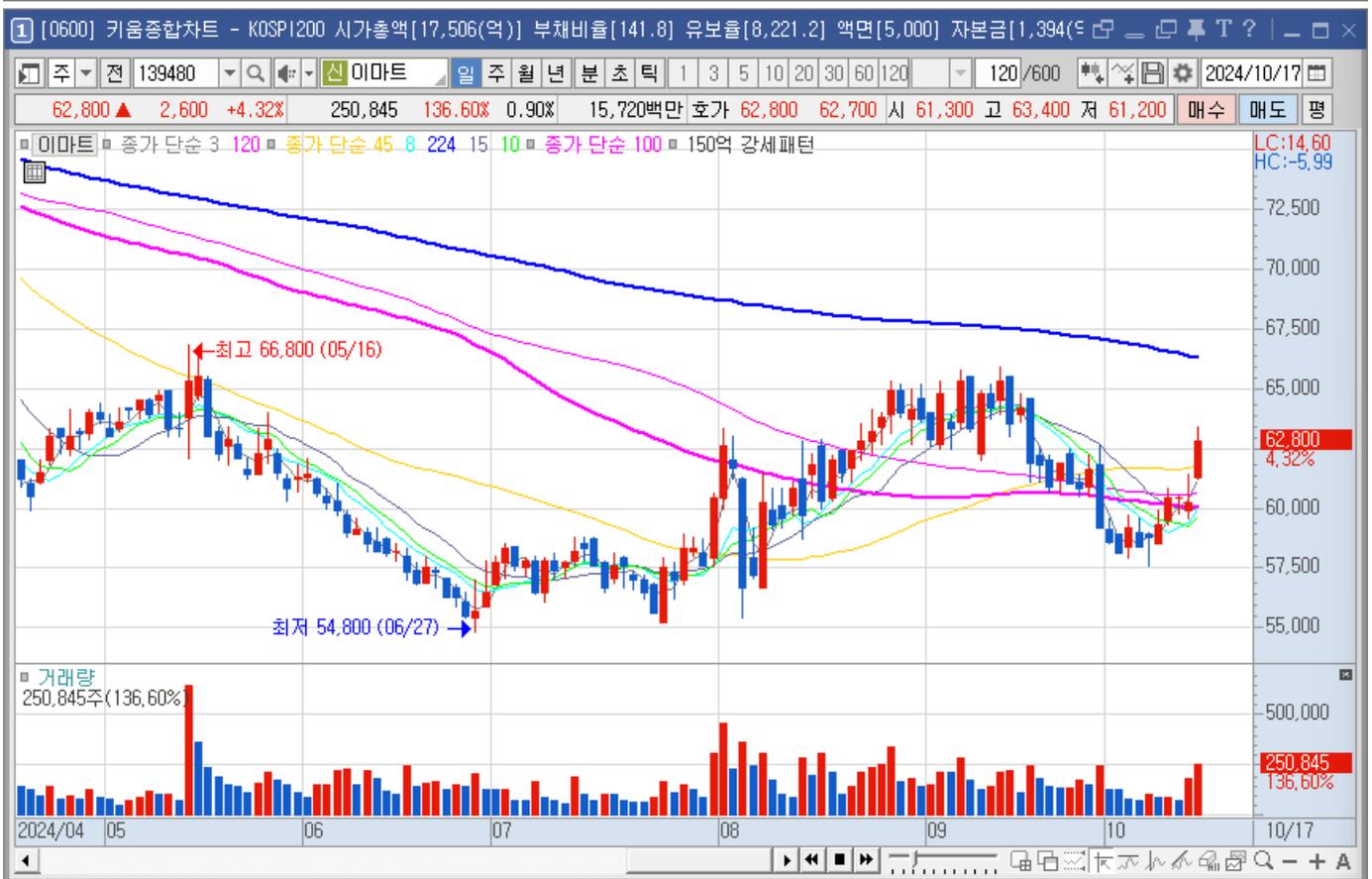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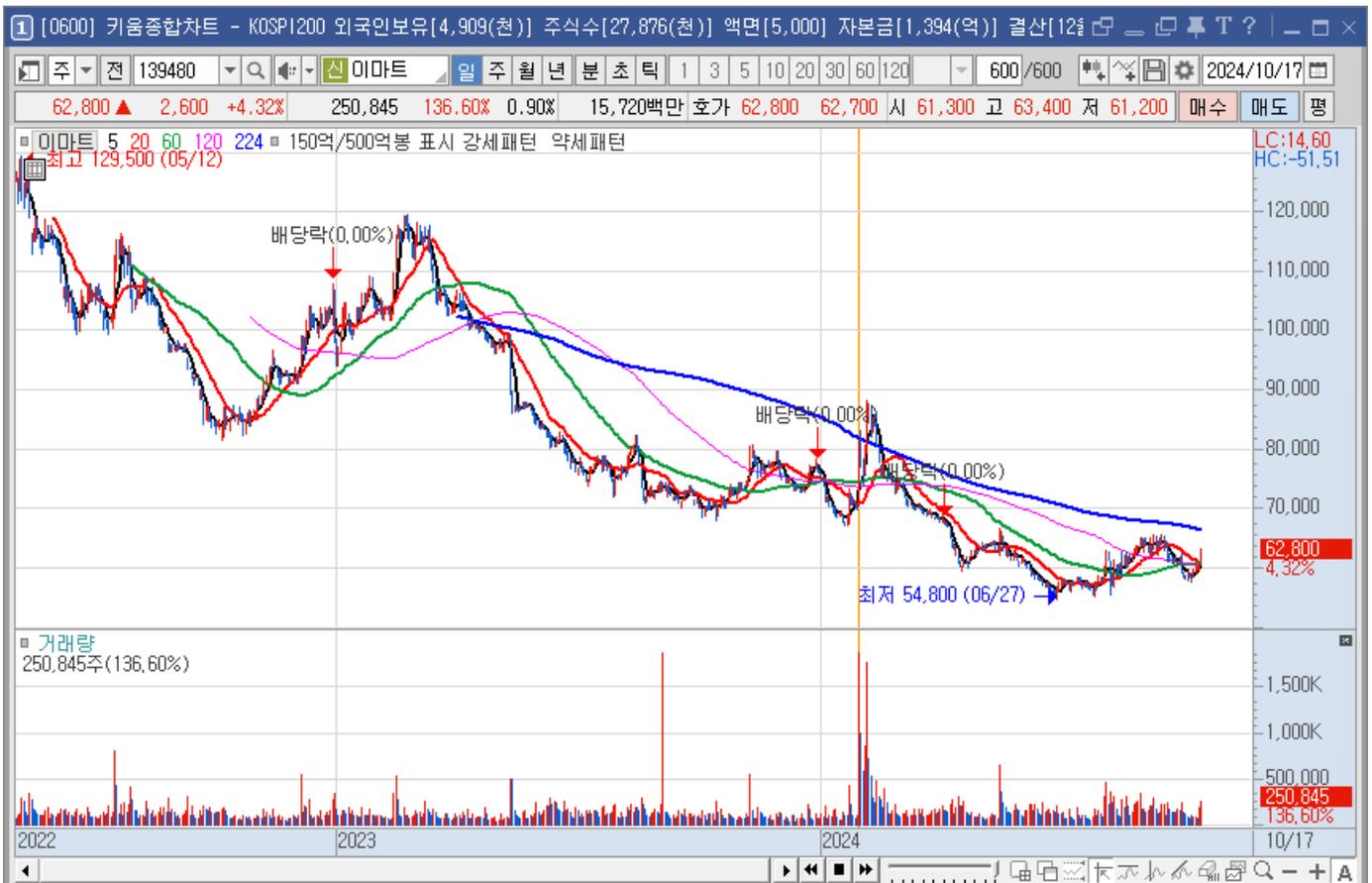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9,332	29,472	30,099	31,331	32,132
영업이익	136	-47	222	282	308
세전이익	1,252	-212	-13	127	285
지배주주순이익	1,029	-89	1	89	237
EPS(원)	36,924	-3,196	40	3,182	8,496
증가율(%)	-34.5	-108.7	-101.3	7,831.3	167.0
영업이익률(%)	0.5	-0.2	0.7	0.9	1.0
순이익률(%)	3.4	-0.6	-0.1	0.3	0.7
ROE(%)	9.6	-0.8	0.0	0.8	2.2
PER	2.7	-24.0	1,505.3	19.0	7.1
PBR	0.2	0.2	0.2	0.2	0.2
EV/EBITDA	8.2	8.6	7.6	6.5	5.7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이마트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이마트, IBK투자증권



두산

전자 BG 가치 추가 상향 조정

[출처] DS투자증권 김수현 애널리스트

전자 BG 가치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

전자 BG의 사업 가치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자 BG에 대한 적용 멀티플은 15배로 보수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도 기존 19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자 BG 사업 가치 조정의 근거는 25년 추정 매출을 기존 8,860억원에서 1.1조원으로 24%로 상향 조정했으며 추정 영업이익률도 상향 조정했다. 전자 BG의 영업이익률은 24년 12.5%대로 추정되며 25년 영업이익률은 14~15% 내외로 가정했다.

전자 BG는 미국 N사의 'B 모델' 단독 쿼에 이어 후속 모델인 차세대 AI칩인 '루빈'까지 대만 경쟁 업체를 제치고 단독 공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B 모델'의 경우 본격적인 매출은 24년 4분기부터 반영되며 루빈 관련 매출은 25년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관련 제품의 마진이 전체 마진을 크게 뛰어 넘어 N사 매출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자 BG의 경상 영업이익률은 15%를 크게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3분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실적 호조 지속 → QoQ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자 BG의 매출액은 QoQ 증가할 전망이다. 3분기 전자 BG 매출액은 2,470억원 (+5% QoQ, +11.6% YoY)으로 예상된다. 특히 3분기 일회성 비용과 AI 가속기 샘플 공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유지될 전망이다. AI가속기와 GDDR7 등 하이엔드 제품은 4분기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4분기 매출액은 최소 2,550억원 (+25% YoY)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매출 기준 고마진 하이엔드 제품 비중은 70%로 추정된다.

지배구조 개편 이후 자사주 18% 점진적 소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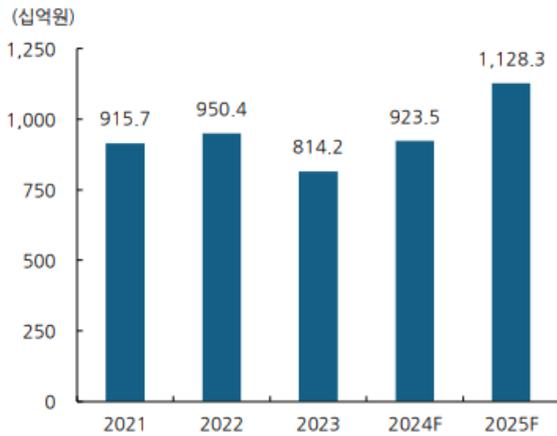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편 이후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사주 18%는 점진적 소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배구조 개편 이후 1) 밥캣의 지배력 증가는 물론, 2) 밥캣의 이익 현금 배당 유입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과 inorganic 성장 등의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2,851	16,996	19,130	19,994	21,032
영업이익	921	1,126	1,436	1,463	1,682
영업이익률(%)	7.2	6.6	7.5	7.3	8.0
세전이익	593	-286	451	1,162	1,40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04	-696	-388	-19	34
EPS(원)	11,812	-42,673	-24,026	-2,206	1,525
증감률(%)	흑전	적전	적지	적지	흑전
ROE(%)	10.9	-36.0	-22.7	-1.2	2.1
PER(배)	10.0	-1.9	-3.9	-85.9	124.3
PBR(배)	1.2	1.0	1.2	2.6	2.6
EV/EBITDA(배)	5.6	4.0	2.7	3.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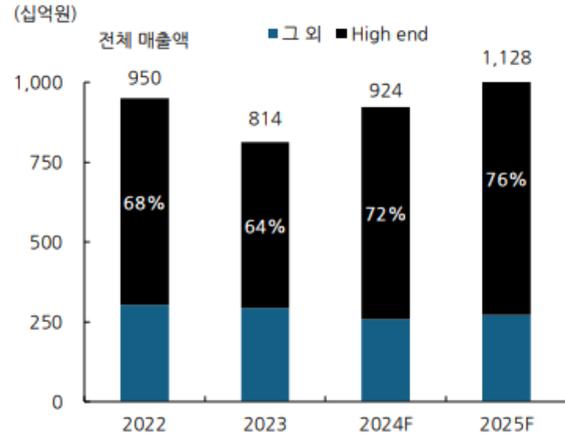
자료: 두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1 전자 BG 사업부 매출 추이 전망



자료: 두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 전자 BG 전체 매출액 대비 High end 비중



자료: 두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삼성전기
 IT기기 수요 부진 영향 불가피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전방산업 수요 둔화 영향 고려해 목표주가 하향

IT기기 수요 둔화 영향을 고려해 동사 실적 추정치를 낮추고 목표주가도 기존 21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향. 하지만 중장기 AI 수혜 및 수요 회복 가능성 고려해 투자의견 Buy 유지

최근 주요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PC 등 IT세트 수요가 부진. 지속적으로 부진한 판매를 기록하던 스마트폰 전략 고객사뿐 아니라 최근 북미 업체의 신제품 판매도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파악. 2025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IT 판매 둔화가 이어질 수 있어 MLCC 업황도 당초 기대보다 회복이 더딜 것으로 판단
이를 고려해 당사는 삼성전기의 전년비 2025년 MLCC ASP(평균혼합가격) 상승폭을 기존 3%에서 1.5%로 낮추고 출하량도 기존 5% 증가에서 2.5% 증가로 하향 조정. 기판부문의 회복 지연도 반영해 동사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6.4% 하향

당분간 부진한 실적 이어질 것, 중장기 AI 수혜는 유효

3분기 영업이익은 낮아진 눈높이를 맞출 것으로 전망하나 4분기 및 2025년 상반기 실적도 IT 수요 둔화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다만, 중장기적으로 기존 MLCC를 포함해 실리콘 커패시터, 유리기판 등 AI 고도화에 힘입어 신규 납품할 수 있는 제품군이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8,909	10,426	10,905	11,215
증감률	-5.5	17.0	4.6	2.8
영업이익	639	791	905	1,013
증감률	-45.9	23.7	14.4	12.0
영업이익률	7.2	7.6	8.3	9.0
(지배지분)순이익	423	611	696	790
EPS	5,617	8,146	9,279	10,534
증감률	-56.9	45.0	13.9	13.5
PER	27.3	16.1	14.1	12.4
PBR	1.5	1.2	1.1	1.0
EV/EBITDA	7.9	5.8	5.1	4.4
ROE	5.5	7.5	8.0	8.4
부채비율	45.2	43.2	39.7	36.4
순차입금	-182	-472	-863	-1,478

단위: 십억원, %, 원, 배

